



# 세계 석학들 광주서 창의적 과학교육 모색

### 학자·전문가 등 16개국 700여명 참석

### 25~29일 동아시아교육학회 학술대회

세계 16개국의 과학 교육계 교수와 학자, 교수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학술회의가 광주에서 열린다.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동아시아과학교육학회(EASE, East-Asi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국제학술회의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조선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세계 3대 과학교육학회의 하나인 EASE(회장 송진웅 서울대 교수)가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는 세계 16개국에서 700여명의 과학교육계 교수 및 학자, 교육전문자·교사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학술회의는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과 과학 교육의 글로벌 이슈의 조화를 토대로 창의적 과학교육

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과학교육의 교류와 국제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과학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9시 30분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과학 교육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데이비드 트레거스트가 호주 커튼 공과대학 기조연설을 맡는다. 데이비드 트레거스트는 과학교육학회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국과학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한 과학교육의 권위 있는 학자이다.

이밖에 영국의 스티븐 챔페(런던 대학), 일본의 후지 히로키(오카야마 대학), 중국의 가오 링비아오(화남사범대학), 호주의 미셸 매튜(뉴사우스웨일스대학), 미국의 조셉 크라이첵

(미시간 대학)과 브라이언 헨드(아이오와 대학), 영국의 저스틴 달런(런던 킹스컬리지), 대만의 짜야주 리우(국립까오슝사범대학교), 한국의 박종원(전남대), 장신호(서울교대) 교수 등 과학교육계의 석학들이 초청 연사로 강연한다.

이번 국제학술회의의 프로그램으로는 해외 석학들의 특별 세션 10차례를 비롯해 구두 발표 100차례 및 80개의 포스터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교사들의 데모 실력이 27차례 진행된다.

28일에는 광주 지역의 금호초등학교와 수완 중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탐방이 진행되고, 29일에는 광주·전남지역의 문화탐방이 실시된다.

EASE 본부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조선대 박영신 과학교육학부 교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세계 3대 과학교육학회로서 위상 확립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 교육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EASE가 NARST, ESERA,



송진웅 교수 데이비드 트레거스트

#### ▲동아시아과학교육학회

기존 미국·유럽 중심의 양대 과학교육학술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아시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과학교육 전문학회의 필요성에 따라 동아시아 5개국(일본·한국·대만·중국·홍콩)의 과학교육계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2007년 10월 31일 서울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했다.

한편 2011 동아시아과학교육 국제학술회의는 동아시아과학교육학회·조선대·한국과학교육학회·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에서 공동주최하며, 광주·광주관광컨벤션뷰로·한국관광공사·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화여자대학교 STS글로벌 연구소가 후원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조선대 정현숙 교수 기술사업화지원사업 선정

조선대 정현숙 교수(자연과학대학 생명공학과)가 농림수산물 가공부와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의 2011년도 기술사업화지원사업에 선정, 3년 동안 17억 4000만원을 지원받아 고혈압,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병을 개선하는 기능성 떡 개발에 나선다.

'생활습관병 개선 기능성 가공제품 개발 및 산업화 사업단'은 정현숙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하고 조선대 임동운·정현숙 교수와 순천대 전순실 교수, 전남대 신말식 교수 등이 참여한다.

사업단은 천연물소재 보유 기술과 산학연 협동체 운영을 통해 기능성 떡과 쌀 가공 제품을 생산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브랜드화를 기해 전통식품

산업화의 성공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즉 천연 식품 보존 효과를 지닌 펩타이드 개발로 기능성 떡의 저장 및 유통 기간을 확대하고 생활습관병 개선 기능성 물질의 개발과 식품첨가제를 활용해 혈행개선 유효 성분 떡, 사이시접 유 강화 기능성 떡, 솔잎 및 뽕잎 추출의 혈당억제 기능성 떡, 노화억제 천연첨가물 쌀가루 등 쌀 가공식품을 개발해 5년 안에 매출 500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솔잎액의 기능성 연구와 식품보존 펩타이드 및 기능성 쌀 음료 개발 ▲기능성 떡 제품의 생리활성분석 ▲기능성 떡 생산조건 확립과 고품질의 다양한 기능성 떡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 전남대 천득염 교수 한옥기술 책임연구원 선정

전남대 건축학부 천득염 교수가 첨단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한옥기술개발 과제 책임연구원으로 선정됐다.

국토해양부 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전통한옥이 갖는 단점을 개선해 친환경 모델을 개발하고 한옥의 보급화 및 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천득염 교수에게 한옥성능요소기술개발을 맡기기로 했다.

천득염 교수팀은 앞으로 4년 동안 매년 14억 6000만원의 연구

비를 지원받으며 전통한옥의 지붕·벽체·담장·기와·온돌·창호 등의 부재요소에서 성능이 향상된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특히 전통한옥 보급의 저해 요소였던 단열성능과 비산 공사비, 재래방식의 어려운 시공법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천득염 교수는 "한옥의 장점을 살리면서 우리나라의 전통미를 계승하고 유지보수도 용이한 새로운 주거형식으로 재창조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남대 임원빈 교수 지경부서 연구비 18억 수주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임원빈 교수(35·사진)가 지식경제부 연구과제로 연구비 18억원을 수주했다. 산학협력단은 임원빈 교수가 (주)Force4, 목포대와 공동으로 지식경제부 2011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앞으로 3년간 정부출연금 18억원을 지원받으며 '대형 LCD TV의 LED BLU 적용을 위한 고품도, 고광속 및 YAG급 신뢰성을 가진 국산 형광체 개발'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은 정부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관련 과제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목포대 교수 1인 연구비 2년 연속 1억 이상 달성

목포대학교(총장 고석규)는 2011년 대학정보공시 결과 교수 1인당 연구비가 2년 연속 1억원 이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학정보공시 결과 목포대의 교수 1인당 연구비는 1억 335만원으로, 일반 국립대학 중에서 서울대(2억2954만원)와 전북대(1억1678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대학정보공시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교수 1인당 연구비가 1억원 이상인 일반 국립대학은 서울대·목포대 등 총 4개교뿐이며, 지방 국립대 중 2년 연속 교수 1인당 연구비가 1억원 이상인 곳은 목포대가 유일하다.

목포대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성과는 산업원천기술개발과제,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각종 학술연구사업과 지역혁신센터지원사업, 인문한국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등의 서남해안지역 특성과 지역연고 산업을 기반으로 국책사업 등을 적극 유치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상시 T/F팀의 운영, 학내 제도적인 각종 연구 장려 정책, 연구 환경 개선 등 대학 차원의 연구 경쟁상 강화를 위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앞으로도 목포대는 산·학·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도서 해양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지역 연고 산업, 해양문화 등 지역의 특성을 연구주제로 해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A+ 빵어빵

광주여대 주자은 총장과 총학생회 간부들은 최근 중간고사 기간에 학생들에게 빵어빵 간식을 나눠주며 격려했다. 광주여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국수나 빵 등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여대 주자은 총장과 총학생회 간부들은 최근 중간고사 기간에 학생들에게 빵어빵 간식을 나눠주며 격려했다. 광주여대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마다 국수나 빵 등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 순천대, 정원박람회 연계 일자리 창출 포럼

순천대학교(총장 송영무) 정원박람회 일자리인적자원개발사업단(단장 박종철)은 최근 대학 박물관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포럼'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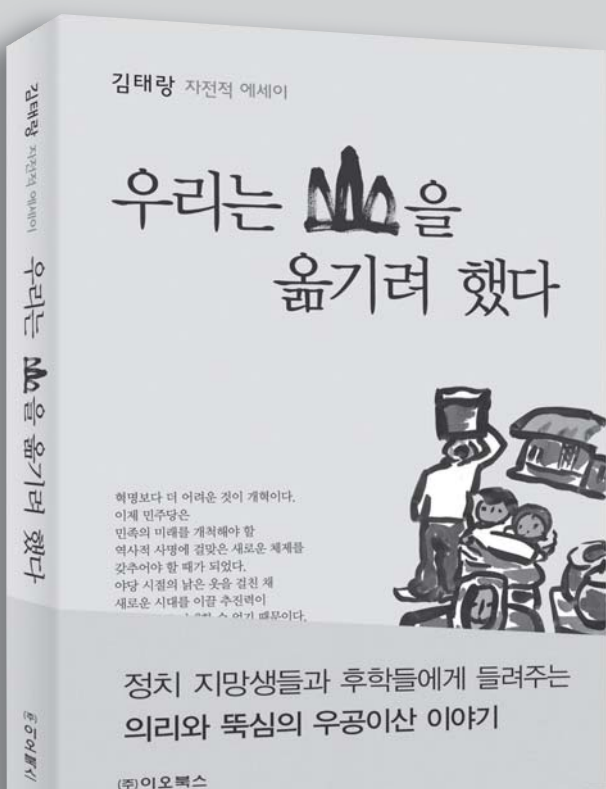
이날 포럼에서는 순천대 사회적

기업경영연구소 유일 소장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경제문화공동체 더할 김중완 원장과 희망채널농조합법인 임동완 국장이 사회적 기업 사례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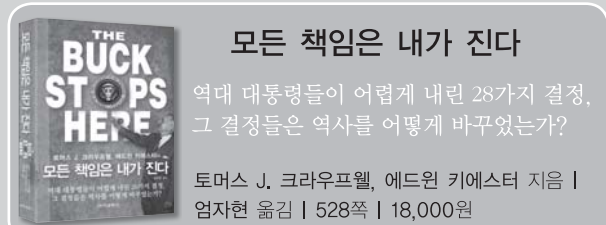
또 순천시 류승진 과장 등 8명의 전

문가 토론과 사업단 소속 교육생 대표의 예비 사회적 기업 설립방안에 대한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한편 정원박람회 사업단은 고용노동부와 순천시의 지원으로 올해 3월 창단, 순천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약재 디스플레이', '한방약초 스토리텔링', '약선음식', '정원관리'의 4개과정을 실시했으며 이날 수료식도 함께 가졌다.



김태랑 지음 | 356쪽 | 12,000원



####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역대 대통령들이 어떻게 내린 28가지 결정, 그 결정들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토머스 J. 크라우프웰, 에드윈 키에스터 지음 | 엄자현 옮김 | 528쪽 | 18,000원

(주)이오북스 전화 02)3666-2525 www.eobooks.com

# 우리는 M을 옮기려 했다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온몸을 감고 휘도는 강력한 기를 느끼게 된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걸어온 파란만장한 일대기가 너무나 진솔하게 서술되어 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헌법학 교수

경남 창녕 출신, 부산수산대학 졸업 국립부경대학교 명예 경제학 박사

신민당 입당(1971년), 김대중총재 정치특보 제15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인사위원, 국회의원총장 역임



김태랑

영남인으로 동교동계에서 40여 년간 DJ와 한길을 걸어온 외길 인생 민주당의 산 역사 김태랑 총장이 전하는 신의와 열정의 정치 담론